

교회목표

1. 천국일본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21세기의 환상 바라보게 할 비전2000운동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 동이 앞으로 한 주간을 남겨놓고
한 특별기도운동인 비전2000 운 있다. 이에 참모본부(본부장 최

◆행동강령

1. 우리는 21세기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현재를 결단한다.
2. 우리는 미래 사역을 감당할 젊은이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도한다.
3.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세계 복음화의 산 실이 된다.

◆기도제목

한 점의 불씨가 정글을 태운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불씨

우리의 기도가 역사의 새벽을 깨우리라

21세기를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1.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민족
2. 교회 부흥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백성
3. 거듭난 젊은이들이 구름같이 피어나는 사회
4. 세계 복음화 대각성 운동의 산실
5. 1억 3천만 일본인과 70만 제일동포 복음화
6. 철의 장막 속에서 역사의 여명을 기다리는 2천만 북한동포
7.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주옵소서, 하늘 문 여는 황금 열쇠를 주옵소서.

석주 장로)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비전2000운동 새벽기도회에 참가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과 행동강령을 발표하였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건전한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전2000운동을 준비하여 이 운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전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중등3부

농어촌전도대에 상품 전달

중등3부(부장 송기홍 장로, 지도 김광국 목사)는 여름 성경학교 기간 중 여러가지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이, 수상받은 상품들을 모두 농어촌 전도 활동에 써달라고 기증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소재 구국성지기도원에서 열린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학생들은 자신하여 모든 수상 상품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바쳤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려는 중등 3부 학생들의 마음이 표출된 것이다. 사랑과 인정이 매달라가는 요즘에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랑의 운동이 끊임없이 계속 전개되어야 하겠다.

무지개회

30일 총회 열어

우리 교회 사무장로 부원들의 모임인 무지개회가 지난 7월 30일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이 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은 회장 황승희 권사(최명환 장로 부인), 총무 평정옥 권사(박지현 장로 부인), 서기 라영실 집사(김광남 장로 부인), 부서기 이영희 집사(오경수 장로 부인), 회계 최태욱 집사(최성현 장로 부인), 부회계 이윤자 집사(이창호 장로 부인)이다.



리스도의 사랑의 사도되어 21세기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때때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여기 기념비를 세워 바칩다.”라는 취지문이 새겨져 있다.

이 기념비는 우리 교회의 무명 집사의 헌금으로 건립된 것이다.

비전2000운동을 개최하면서

무엇을 가졌다고 묻지 말고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묻자.

비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은 비전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가 임박한 것이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부기를 손에 는

충성된 병사로 사는 것이 뜻이 있다.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능력자들이 요청되는 시대에

날마다 주기를 끌어안고

오대양 육대주

2백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기도로 계시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약속된 환상을 보고

기도로 성령을 받고

기도로 기적을 부르코

기도로 역사를 창조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자.

기도의 사람들이

별처럼 나타나게 하자.

갯터미에서 불을 일으키고

절망에서 희망을 일으키고

쟁투에서 평화를 일으키고

고난에서 환화를 일으키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기도의 능을

우리 모두 받아야 한다.

수고와 무거운 짐은

갈보리 언덕에 내려놓고

반손들고 달려가

십자가를 붙드는

하늘 위로의 시간을

체험토록 하자.

비전2000운동을 출발 신호로

하나님을 만나는 충현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자.

이 중 윤 위임목사

성경연구원의 91년도 제2학기 8월 31일 개강

우리 교회 부설 충현성경연구원(원장 이종윤 목사)의 91년도 제2학기가 오는 8월 31일(토) 오후 6시 30분 배다니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된다. 영적으로 혼돈과 무질서를 거듭하는 이 시대에 성경연구원의 교과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바르게 지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향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목 해왔다. 91년도 제2학기는 주 간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 원양성부 등 세 파트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주간성경공부에 영어반과 일어반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원서 접수는 8월 31일까지 사무국 행정과(소석관 102호)에서 받으며, 모든 수업은 소석관 30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사양성부(제35기)

교육기간 : 8월 31일~11월 19일

수업시간 : 주일반 : 주일 낮 12시 30분~2시 30분

주간반 : 화요일 오후 7시~8시

●찬양대원양성부(제5기)

교육기간 : 8월 31일~11월 18일

수업시간 : 월요일 오후 7시~9시

●주간성경공부

교육기간 : 8월 31일~11월 15일

반	요일	시 간	강 의 내 용	강 사
오전반	화	10시 ~ 11시 10분	배다니가전서	이종윤 목사
		11시 20분 ~ 12시 30분	출애굽기	송태근 목사
		11시 20분 ~ 12시 30분	고린도전서(영어반)	설길준 목사
오후반	수	10시 ~ 11시 10분	히브리서	김양홍 목사
		11시 20분 ~ 12시 30분	열왕기상	신표근 목사
		7시 ~ 8시 10분	갈라디아서	이종생 목사
아담반	금	8시 20분 ~ 9시 30분	사목대상	안경소 목사
		2시 ~ 3시 10분	마가복음(1)	김성윤 목사
		2시 ~ 3시 10분	로마서(영어반)	마일수 목사
아담반	금	7시 ~ 8시 10분	마태복음(1)	김학진 목사
		8시 20분 ~ 9시 30분	호세아	김관근 목사
아담반	금	새벽 6시 ~ 6시 50분	창세기	이종윤 위임목사

제1회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 오늘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분과별 모임 가져

오는 8월 22일(목)부터 개최될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 참가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등록한 인원은 한국이 102명, 일본이 54명으로, 등록은 대회 개최 당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청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관과 그리스도 신앙에 입각한 세계관을 정립하게 하고 자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기여할 천국일본

을 양육하기 위한 이번 대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가하여,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대회 준비위원회는 이 대회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각 분과별 모임을 소집하고, 특히 참가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오후 4시에 소석관 514호에서 갖는다고 한다.

충현인의 이상 담은 비전2000기념비 지난 8일 새벽 제막식

비전2000기념비 제막식이 지난 8월 8일(목) 새벽기도회가 끝난 후, 교역자, 장로 등 70여명의 충현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앞뜰에서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판어가 위에 새겨진 물고기를 상징하는 비전2000기념비는 지구를 안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충현인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 비에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믿음으로 결단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충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한밤 중의 외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요13:21~30)

세상에 빛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가롯 유다가 어둠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문은 배신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발표하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요13:21)

제자들은 자신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배신자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그룹을 떠나서 어둠으로 이탈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가롯 유다는 자살자가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1. 배신자에 대한 선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미리 광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서로 의심만 한 것이 아니라, “내니이까”하고 묻고 있습니다(마26:22).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뻔뻔스럽게 “내니이까”하고 덤벼들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밤 자기를 팔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쩌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보다 마음이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요13:26)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신성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종종 잊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서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할 때에 그 마음이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절망도 느끼셨고 슬픔도 맛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이런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누구보다도 크게 경험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자기를 배반한다는 엄청난 사실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하는 저주 앞에 직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 거듭나지 않은 자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거듭나지 않은 성

도들이 있다는 교훈을 배워야겠습니다.

첫째, 모범적인 행동만 가지고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눈으로 보고 발로 따라 다녔으며 교훈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는 날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신할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행동만 가지고는 구원함에 이르는 신앙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습관은 배울 수 있고 신앙은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은 너나할 것없이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적인 행동

에는 모방만 가지곤 안됩니다.

둘째, 그렇다면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롯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불신자의 모습은 외모가 신자의 모습과 아주 방불합니다. 가짜는 진짜보다 더 번쩍거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선택받은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가롯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가롯 유다는 속이는 자요 위선자요 불신자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그런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이라 지적을 하시고 입에다 떡을 넣어줄 그 시간까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가 있는 어둠의 자리에서 떠나 빛에 거해야

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했습니다. 물은 씻는다는 것이고 씻는다는 말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되, 회개의 열매까지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삶에 변화가 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부여되는데 그것은 완전한 새 생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를 찾아야 되는데, 구원의 주가 내게 먼저 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오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시는데 누구신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고전1:30).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구원을 받는

3.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다니던 가롯 유다가 배신자임을 처음부터 모르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확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수없이 불순종을 행하고, 불신앙의 죄악을 날마다 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처치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직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4. 어둠을 쫓은 결과

본문 30절을 보면, 이 일이 일어난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운명을 묘사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롯 유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멸시하시거나 무안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의 원편에 앉게 하는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자리다툼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

이 가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를 그들은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는 식탁에서 사랑의 대화를 주님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집어 그 입에다가 집어 넣어줄 정도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배신자가 되고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박혀 돌아가실 때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했다고 했습니다. 빛이 없어진다면 어둠이 온다고 하는 진리를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이 오면 죽음과 저주, 심판의 자리로 떨어질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제자들은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면, 가롯 유다는 “제 길로 갔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 영원한 어둠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날밤 그가 예수님을 떠나는 그 시간에, 그가 외출을 하는 그 시간에 영원히 저주와 죽음으로 그는 걸어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진리와 인내와 자비와 거룩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고 이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예수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까요.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무엇을 찾겠다고 자신의 선생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어둠으로 걸어난 가롯 유다의 모습은,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롯 유다가 따라간 거기에는 생명이나 은혜나 구원이나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처하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둠에 들어가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자꾸만 어둠으로 더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을지 모르고 죽을 곳으로 자꾸만 가는 것이 어둠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롯 유다는 이미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곳에 그는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빛되신 예수님, 생명되신 예수님, 진리되신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세기말 서진(西進)을 거듭하던 복음의 진군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개신교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1867년(고종 4년)에 영국 선교사 토마스 목사가 황해도 웅진에, 그리고 이듬해에는 대동강을 따라 올라와다가 순교당한 것이 처음이지만, 1882년(고종 19년) 미국과 수호조약을 맺음으로써 비로소 기독교의 활동이 자유롭게 되었다.

이 땅에 정식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885년(고종 22년) 4월 5일(부활주일)에 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H. D. Appenzeller) 두 부부가 같은 배로 인천 제물포항에 상륙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를 이어 여러 교파의 선교사들이 지역별로 선교 활동을 전개했다.

1900년에 와서 신앙경이 한국학자와 선교사들의 공동 노력으로 번역되었으며, 1907년부터는 일대 부흥운동이 일어나 그 여세는 한국 동포들이 살고 있는 남북만으로 퍼져나갔다.

개신교가 한국에 전래되던 무렵, 한국은 주변과 서유럽의 열강국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었으며 나라 안으로는 부정부패로 정부는 약체였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수용된 개신교는 사회적, 민족적 개혁 의지를 담고 있었고 하

>특집<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

한국의 기독교를 말한다

김 창 수 목사
(제5교구·청년3부 지도)

나의 개혁 에너지로 수용되었다.

그 동안 한국의 개신교는 복음 전파와 교세의 확장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 의료 사업, 사회 사업 등을 통하여 국가 문화 발전과 사회 개선에도 큰 몫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일제 시대 때는 우리 국민의 자주 정신을 고취하고 직접 간접으로 독립 운동에 협조하였다.

어떤 이는 한국 교회가 아무런 희생과 고난의 값없이 손쉽게 복음을 수입하여 발전한 것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봉건 군주의 핍박과 특히 1912년의 105인 사건과, 1919년 3.1운동 때 박해는 한국교회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기록이며, 교회가 민족의 현실에 직접 가담한 사건이었다. 1942년에는 모든 개신교가 "일본기독교단"이라는 이름

으로 수난을 당하기도 했고, 해방 후 6.25 전란기에는 동족의 잔학한 박해로 피흘림을 강요당했다.

그 동안 이 민족의 경건한 선전들은 민족 복음화의 깊은 물줄기 속에 자신들을 바쳤고, 그 멀어진 밀알들이 씨음으로써 그 시작이 미약했던 이 나라의 생명 운동이 이제 창대하여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닌 '왕성한 한낮의 나라'로 변화하였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세계에서 복음의 선진국 교회 중 하나로 인정하기에 아무도 주저하지 않는다. 세계의 10대 교회 중 첫번째와 세번째, 그리고 여덟번째로 큰 교회가 다 한국의 서울에 있고, 1930년대 전반기 5년간 한국의 기독교세 증가율은 연평균 15퍼센트씩이나 되었다. 지금도 매일 이

땅에는 6~10개의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 세계 기독교계에서 "교회성장과 전도와 지도는 한국 목사들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유행어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이 같은 국내의 교세 성장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와 타문화권에서의 목회에 기여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많은 제3세계와 구라파의 목회자들까지도 한국 목회자들의 성실하고 열정적인 목회를 배우려고 한다.

이미 총현교회에서 2차에 걸쳐 실시된 바 있는 '김치(KIMCHI) 세미나'에서 체계화된 목회 형태와 아울러 한국 교회의 강점인 개교회의 새벽기도 운동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참가국 목회자들은 이를 자국에서 시행하겠다는 각오와 보고를 보내오고 있다.

초창기 시절 이래로 한국 교회의 선두주자들이 지녔던 불굴의 신앙 정신과 자기 희생의 순교자적 자세야말로 오늘의 한국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초석이요 전통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수량적 성장과 함께 그 이면에 내적 모순과 갈등과 시행 착오가 수반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도 묵과할 수는 없다. 변질되어 가는 교리와 신앙의 문제, 교회 부흥운동의 풍토, 선교 및 교육의 새로운 정책 수립 등 이 시점에서 교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도 적지 않다.

이제 한국 교회는 지난 1세기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자체를 좀더 깊이 반성해보며, 앞으로 올 1세기를 내다보며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총현교회에서 개최되는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는 자국 복음화의 원동력과 세계 복음화의 힘을 키운다는 뜻에서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와 인접한 일본의 기독교청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또 자기 갱신을 도모하며, 지도력을 개발하는 일이 이번 대회의 역점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주최하는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와 온 성도의 열렬한 기도 후원이 요청된다.

신표근 목사님, 김민철 대장 외 13명은 두 대의 봉고차에 몸을 싣고 7월 29일 새벽 0시 15분 용산교회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에서 약 20분간 더 들어가 새벽 6시에 용산 1리에 위치한 용산교회에 도착하였다. 김봉환 전도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봉사하시는 여집사님 몇 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 일행은 곧 용산교회에서 도착예배를 드렸다. 짐을 풀고나니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다.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또 밤을 새워왔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끝마친 후 다음 일정을 위하여 약간의 휴식을 취했다. 오후에 비가 그쳐 김정선 집사님과 함께 교회 근처의 몇 집을 방문하였다. 한 가정은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에 걸려 수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고, 한 가정은 70세 고령 할아버지가 개신 곳이었다. 그분들과 거의 한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고 간증도 하며 설득을 하였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감동되어 교회나오기로 약속하였다.

청년부 학생들은 열심히 교회 안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이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

셨을까. 참 감사하였다.

신표근 목사님께서 저녁부흥회를 인도하셨다. 29일에는 "주가 쓰시는 사람", 30일에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31일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아래 성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큰 은혜를 받았을 줄 믿는다.

30일과 31일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주셔서 산을 넘으면서 용산리 1, 2, 3반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다. 두 팀으로 나누어 이들 동안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며 전도를 다녔다. 복음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거의다가 순순히 예수님을 믿기로 약속하였다. 하나님께서 모두 알곡으로 거두어주실 것을 믿는다. 산을 넘어가니 통일교를 믿는 집이 몇 세대 있었다. 말로는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교 믿는 집 어린이들이 성경학교에 참석하였다. 참 감사하였다.

용산교회 전도사님께서는 남이 폐차하려는 봉고차를 가져다가 손수 고쳐 사용하고 계셨다. 그 차량으로 산넘어에 사는 성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모시고 오셨다. 그 차로 성

도들만 모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차량 봉사까지 하고 계셨다. 일전에는 해산하러 병원에 가는 임산부가 이 봉고차 안에서 애가를 순산하였다고 한다. 복음에 빛난 자

풍성한 결실을 소망하며

(제9교구·용산교회부)

로서 봉사하시는 전도사님의 수고가 한없이 크시다. 이런 전도사님을 돕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자니 너무 안타까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산교회와 김 전도사님 위에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한다.

내가 이번에 크게 감동받은 것

다녀와서
농어촌전도를



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 훌륭한 청년부가 있다는 점이었다. 청년부 전도단은 서울 명동거리를 누비며 찬양과 율동으로 전도를 한다고 한다. 이런 전도단이 시골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데야 능수능난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 지도 모른다. 용산리 1, 2, 3반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99퍼센트가 다 모여 찬양과 율동 배우는데 여념이 없었다.

31일 밤에는 청년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는 성극을 하였는데, 여자 선생님들

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성극을 잘 해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감명 깊게 잘 보았다. 그날 밤에는 떡 잔치로 푸짐하게 대접을 하였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나오기로 약속하였다. 우리 청년팀이 어린이들을 잘 가리쳐주었으니 열매 맺는 것은 틀림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선만 다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8월 1일 아침 8시에 용산교회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곳 성도들과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강릉에서 오전 11시 55분차가 준비되어 있었으나 6시간 이상 연착되었다. 그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청년부원들은 이동식 오르간과 기타를 치며 찬양과 율동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다. 세상 노래들을 부르다가 그것을 멈추고 우리 총현의 자랑스러운 전도대에 눈길을 모으고 열심히 듣고 있었다. 전도대가 너무나도 혼란이 잡힌 것을 볼 때 또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었다.

농어촌전도대에 많은 청년들이 참가해야만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잘 심을 수가 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농어촌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더욱 좋겠다. 젊은 전도팀이 너무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했다. 나는 왜 일찍이 주님을 물랐을까. 40년간을 허송세월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 남은 여생 생명바쳐 충성할 것을 마음 깊이 다짐한다.

동구라파가 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입기운과 그의 콧김이 악을 물리치고 독을 사라지게 하신 것이다(욥4:9). 달렸던 불가리아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박해를 받던 루마니아에서는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헝가리 교회가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고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개척교회운동이 한창이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동구권 복음화대회가 열리고 폴란드에서는 예수 대행진이 벌어졌다. 늑은 사자의 우는 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졌으며 암사자의 새끼가 홀어짐으로 하나님의 양들의 늘어선 손이 힘을 얻고 약해진 무릎이 강해진 것이다.

16개월 전 필자가 동구라파를 방문했을 때와는 다른 엄청난 변화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지역에 혁명의 바람이 분 지 한 달이 겨우 지난 그때에는 마치, 닭장에 갇혔던 닭이 농임을 받았지만 우리에서 몇 발짝 전진해가 다가는 두려움 때문에 다시 우리로 돌아오려는 기색이 완연했었던 것 같았다. 그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몰랐고 인권의 존엄성을 아직은 인지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경제적 질서나 사회제도의 변화가 어떠한지는 필자의 주 관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활기찬 거리의 모습만 보아도 그때의 암울했던 인상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15일 중원교회 성도 13명이 선교단을 구성하여 동구권 복음화대회 참석차 출발했다.

■ 동구라파 선교여행기 ①

마게도나의 부흥에 응답한 한국 교회

이 중 윤 위임목사



두 주간의 여행을 통해 6개국 9개 도시를 방문하고 14개 교회에서 설교와 강연을 할 수 있었다. 직제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모인 집회도 가졌다.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수없이 드렸다. 우리는 저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형제를 만나 격려하고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다. 사선을 넘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오늘에 이른 저들로 부터 우리는 충격과 반성과 결심의 선물을 받기에 충분했다.

우리 일행이 제일 먼저 기착한 곳은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다. 차우세스쿠에 대항하여 피흘린 흔적을 도시 한 복판의 건물들에 박힌 총탄과 검게 타버린 도시 중심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자유는 얻었으나 질서를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개척교회당에 모인 이백여 명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3시간이 넘는 긴 예배와 토론시간이 지루한 줄 몰랐고 혹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교회가 갱신될 수 있는지를 묻기도 하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중원교회 김치(KIMCHI: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세미나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루마니아에 새로운 교회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공산주의 정부하에서 활동하던 교계 지도자들이 점차 불신을 받게 되고 지하 교회 지도자들이 새로운 교회를 인도하게 된 것이다. 성경과 찬송가가 없어 고민하는 저들에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를 조사도 해보았다.

유고슬라비아의 내전으로 인해 도시간에 교통이 두절되고 통신이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우리는 루마니아에서 하루 일정을 더 갖기로 하고 유고 행의 계획을 변경시켰다. 그날밤 우리들을 감격케 한 것은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는 창립예배에 참여케 된 것이다. 김치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한국 교회를 모델로 교회를 세워 보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임마누엘교회는 글자 그대로 불이 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영적 분위기가 활기찼다. 필자는 안다오 교회 모델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찾아 증거하면서 교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웅장한 건물도 없고 아름다운 찬양대나 파이프 오르간은 없을 지라도, 저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에 있고 순서지도 없는 예배지만 감동한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헤어질 줄 모르고 마치 초대 교회를 방불하게 서로 열싸안고 입을 맞추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져야 호텔로 돌아온 우리들은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아서인지 피곤을 잊고 루마니아 교회 미래를 전망하는 대화로 꽃을 피웠다.

벨그라드를 포기한 우리들은 불가리아의 소피아로 버스를 대절하여 육로를 따라가기로 했다. 자연은 어디나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인간들의 죄만 오염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다뉴브강을 건너 불가리아로 들어선 우리는 국경을 넘었다는 느낌을 전혀 가질 수

가 없었다.

불가리아의 교회 지도자들과 이틀 동안 6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한 결과 소피아에 로고스 성경아카데미를 초교파적으로 세우기로 하고 신학 교육을 위해 중원교회의 어느 성도가 이름없이 바친 미화 1만 달러를 신학교 기금으로 전달하는 영광스러운 순서도 가졌다.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회중교회의 총회장 및 감독들이 함께 서명을 하고 신학교 이사장과 학장까지 선임하여 92년 9월 개학을 목표로 대강의 커리큘럼과 학교 운영 지침까지 마련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동안 각 교단 지도자들이 개교회로서는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인식하고 연합신학원 건립을 바랐지만 한 자리에 앉아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더우기 오순절파에서는 자기들끼리 교파 신학교 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하 교회에서 올라와 겨우 햇빛을 본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직 개척 건물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신학교를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어서, 연합신학교 설립은 꿈과 같은 것이었다고 했다. 미래를 위한 신학교도 세워야겠지만 현재 목회를 하겠다고 나선 목회자 재교육은 더욱 시급한 상황이었다. 불가리아는 다른 동구권 나라들보다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더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였다. 하루 식생활 해결에 매달려야 하는 이들로서는 교회를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계속)

통곡의 한 서린 부카레스트!

김 연 이 전도사
(중등1부·출판부 지도)

자유에 굶주린
수많은 젊은이의 선지파를
강줄기같이 쏟아내던 날
너는
온 몸을 뒤틀며
오열하였다.

예수를 선포하고
레단을 설교하라고
영원한 왕국을 꿈꾸며
잠꼬대하던
차우세스쿠
하늘에서 계명성이
떨어지던 날

너는
춤추며
받았던 피를

숫구치 올렸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심장을 갈라
벤진을 붓고
라이타를 그어
불을 붙이던 땅에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는대

젊은 닛일랑
돌비에 잠재우고
슬픈 기억일랑
가슴에 접어두고
하나님을 선포하라
영원한 구원을
찬양하여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계2:25,26)

에바다부 9월 7일부터 수화 교육 실시

에바다부(부장 조인제 장로, 지도 김성운 목사, 부지도 임태주 전도사)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개강 예배는 9월 7일(토) 저녁 7시 소석관 109호에서 드리게 되고, 교육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남숙덕 권사 별세

위영환 장로의 부인 남숙덕 권사가 지난 6월 16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남권사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 60년 1월 서리집사로, 73년 1월 시무권사로 임명받고, 남편 위영환 장로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다가 81년 도미했다. 유족들에게 성도의 위로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주소는 Young Whan Whee 148 Cedar Ridge Dr. e-10 Monroeville, PA. 15146 U. S. A.

신간인쇄

《창세기 강론1》

창세기 강론1

이중윤 위임목사가 아담반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창세기

강론1》이 출간되었다.

본서는 창세기를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으로 전제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강해식 방법론을 통해 엮어진 책으로, 성도들이 성경 공부 교재나 신앙 성장을 위한 경건 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야의 소리

① ...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된 지 어언 45년. 이 민족이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날은 언제 오려나.

② ... 하기능어촌전도대원이 뿌린 씨앗,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리라.

③ ...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하여 자랑할 것이 많은 우리 교회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니 겸손의 위치를 끝까지 고집하라.